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강문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kangms@kiep.go.kr, Tel: 044-414-1204)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mijeong@kiep.go.kr, Tel: 044-414-1225)

문수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shmoon@kiep.go.kr, Tel: 044-414-1116)



차 례

1. 아프리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3.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코로나19 확산 현황]** 아프리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8월 4일 기준 약 97만 명)는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남아공에 확진자가 급증하여 8월 4일 기준 52만여 명에 이르며, 북아프리카(이집트 약 9만 5,000명, 알제리 3만 2,000여 명 등)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나이지리아 4만 4,000여 명, 가나 3만 8,000여 명 등)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타 대륙에 비해 적은 검사 건수, 소극적인 역학조사,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 **[정부 대응]** 아프리카 지역 각국 정부는 2월 말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동 제한, 국경 봉쇄, 각종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음.
 - 각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진단 키트 구매, 보건 및 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긴급 투입함.
 - 남아공, 가나, 케냐 등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접촉한 집단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음.
 - 각국은 기업 지원, 실업자 지원 등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으며, 금리 인하와 세금 감면을 시행함.
- ▶ **[사회경제적 영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은 역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및 고용시장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SDGs 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 IMF, AfDB 등은 아프리카 대륙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교육기관 폐쇄로 학교 교육 단절 및 저소득층 학생의 영양실조가 우려되며, 코로나19 외의 보건서비스에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 ▶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세계은행, IMF, AfDB 등은 아프리카 각국의 부채 상황을 유예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금융을 지원함.
 - 아프리카에서 IMF 긴급금융지원금(Emergency Financing)을 받은 국가는 8월 4일 기준 37개국에 이르며, 기존 보건협력 프로젝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조치가 추가되었음.
- ▶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아프리카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송금, FDI, 공적개발원조(ODA) 등 해외 자본 유입 감소가 전망되며, 국경 봉쇄로 역내 교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지역 내 해외 자본 유입 감소로 빈곤율 및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 및 보건 분야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빈곤층 증가와 경제지표 악화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지역간 봉쇄 및 각종 기관 폐쇄조치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1. 아프리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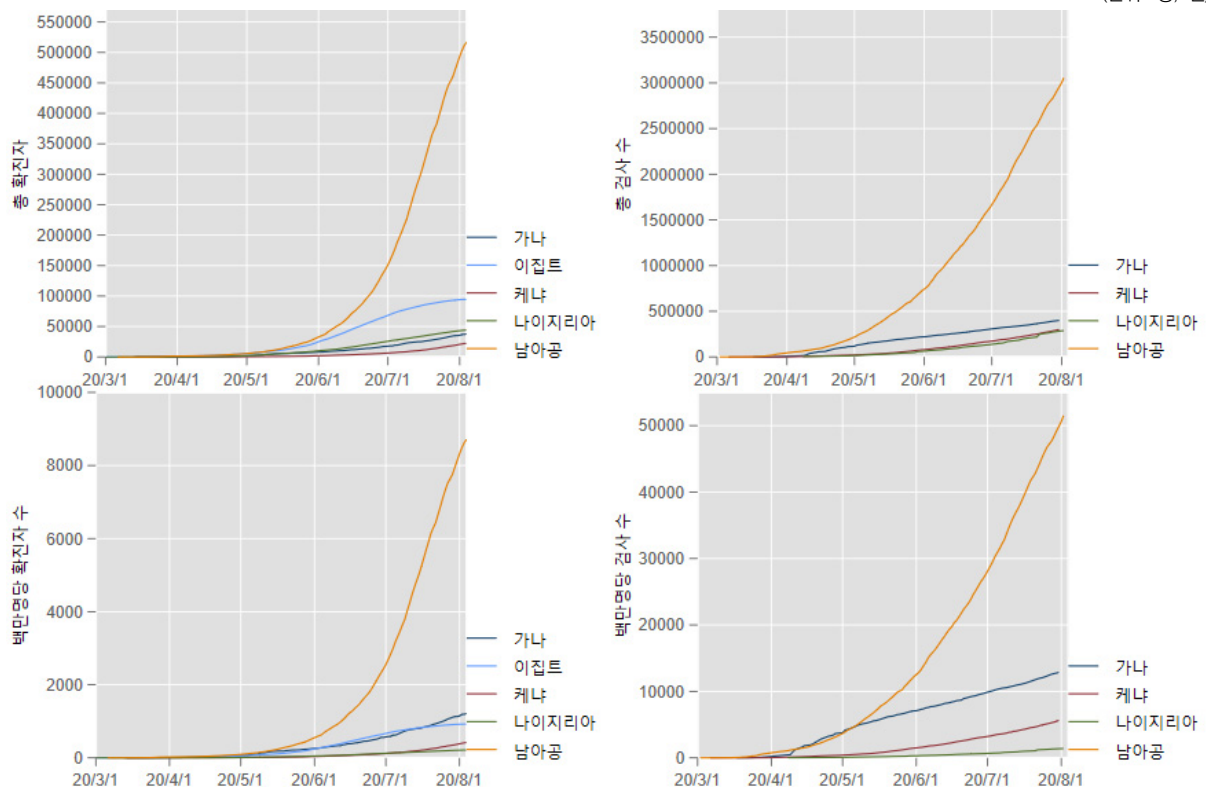
가. 주요국¹⁾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 [코로나19 확산 추이] 아프리카 대륙은 지난 2월 말에 이집트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월까지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그림 1 참고).

- 아프리카 지역 내 확진자 수는 8월 4일 기준으로 약 97만 명이며, 남아공(약 52만 명), 이집트(약 9만 5,000명), 나이지리아(약 4만 4,000명), 가나(약 3만 8,000명) 등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짐.
- 8월 4일 기준 국별 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아프리카 지역이 평균 944명으로 대양주(평균 541명)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임(남미 5,945명, 유럽 4,153명, 아시아 4,052명, 북미 2,551명).
- 3월에서 7월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7월 31일 기준 2.22%이며, 북미(3.26%), 유럽(4.76%), 중남미(2.9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임.
-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 전반적으로 검사 건수가 적어 검사를 받지 못한 감염자도 많을 것으로 보임.

그림 1. 아프리카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검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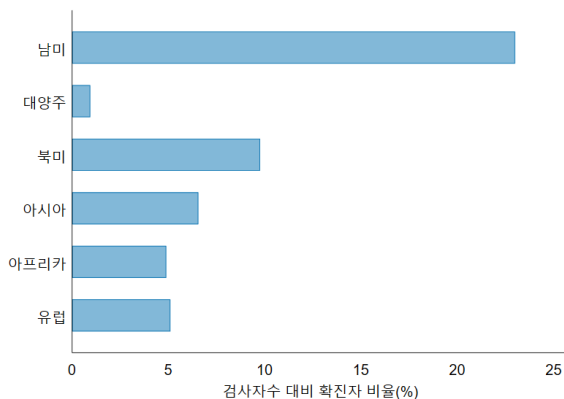
(단위: 명, 건)



1) 주요국은 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등 4개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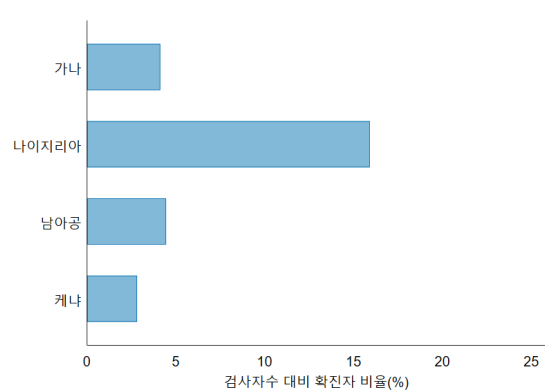
- 남아공은 최근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확진자 순위가 세계 5위임.²⁾
 - 남아공은 첫 확진자가 나온 3월 6일 이래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5월 18일을 기점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으며, 8월 2일 하루에만 1만 107명이 확진됨.
 - 특히 전체 확진자의 28%를 차지하는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에는 흑인 빈곤층 거주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하수도 시설이 부족하고 방송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남.³⁾
 - 남아공의 경우 검사자 수가 8월 2일 기준 310만여 명이며, 인구 백만 명당 검사 건수도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나이지리아, 가나, 케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임(그림 1 참고).
-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지역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7월 초 감소세에 들어섰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 주요국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월과 7월 사이 대폭 증가함(가나 8.4명 → 545명, 케냐 2.8명 → 293명, 나이지리아 6.5명 → 572명). 에티오피아의 7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323명으로 높은 편임.
 - 최근 북아프리카 국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3월과 7월 사이 월 평균 신규 확진자는 이집트(22.5명 → 903명), 알제리(22명 → 514명), 모로코(25명 → 314명) 순으로 증가폭이 높음.
-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은 검사자 수 대비 4.89%로, 대양주를 제외하고 최저 비율임(그림 2 참고).
 - 아프리카 주요국의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은 케냐(2.8%), 가나(4.1%), 남아공(4.4%), 나이지리아(15.9%) 순으로 낮음(그림 3 참고).⁴⁾

그림 2. 대륙별 코로나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



자료: Our World in Data.

그림 3. 아프리카 주요국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



자료: Our World in Data.

2) "South Africa's Hospitals Bracing for Surge of Virus Patients"(2020. 7. 3), VOA, <https://www.voanews.com/covid-19-pandemic/south-africas-hospitals-bracing-surge-virus-patients>(검색일: 2020. 7. 24); COVID-19 Map(2020), Johns Hopkins University Coronavirus Resource Center,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검색일: 2020. 7. 30).

3) "South African hospitals thinks outside the box to boost COVID-19 testing"(2020. 7. 20), WHO, <https://www.who.int/news-room/feature-stories/detail/south-african-hospital-thinks-outside-the-box-to-boost-covid-19-testing>(검색일: 2020. 7. 24).

4) 참고로 우리나라의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은 1.98%임.

나.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 **[사전 대응]**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 아시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2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코로나19 증상 및 감염경로에 대한 정보를 역내 국가간에 공유하기 시작함.

- 각국은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 지역 코로나19 발생을 막기 위해 공조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1일 아프리카 각국에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배포함.⁵⁾
-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그리고 아프리카 질병관리센터(Africa CDC)는 2월 말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각국 정부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나이지리아 CDC 소속 감염병 전문가가 중국에 파견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아프리카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한국, 중국 등 아시아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입국을 2월 말부터 금지함.

■ **[이동 제한 및 사업체 폐쇄]** 아프리카 주요국은 3월부터 국경 봉쇄, 지역간 이동 제한 및 통행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식료품 및 의약품 구매 등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 외에는 모든 국민의 이동이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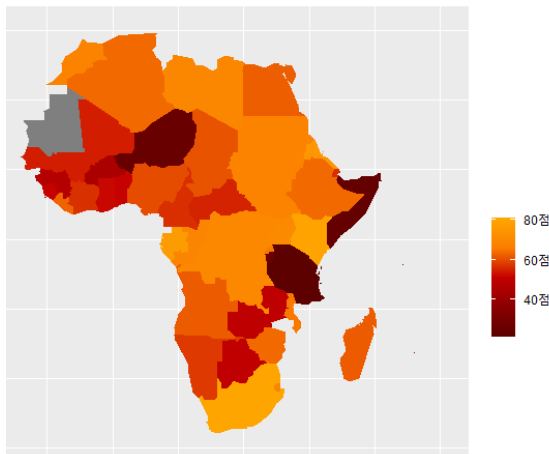
- 주요국은 3월 22일에서 26일 사이에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선 취항을 금지함.
- 5월 1일 가나를 시작으로 나이지리아는 6월부터, 남아공과 케냐는 7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부분적으로 재개함.
- 다른 대륙 국제선 운항이 6월 말부터 재개됨에 따라 아프리카 주요국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국제선 취항을 재개함.
- 주요국은 3월 말부터 이동 제한 및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면적인 이동 제한이 이루어짐.
- 남아공은 3월 26일부터 전국적인 이동 제한 및 사업체 폐쇄를 실시하여 경제 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됨.
- 주요국은 이동 제한조치를 5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함.
- 나이지리아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지역 내 이동을 허용하였으며, 케냐는 7월부터 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단축하였음.
- 남아공은 5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동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함.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결혼식, 종교 행사 등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최근 일정 인원 이하로는 허용하고 있음.

5) WHO(2020. 4. 27), Archived: WHO Timeline-COVID-19(검색일: 2020. 7. 28).

■ **[방역 및 보건 대책 수립]** 상당수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진단 키트,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구매와 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5,000억 나이라(약 13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기금을 신설함.⁶⁾
 - 나이지리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74억 8,400만 나이라(2,070만 달러)를 지급함. 또한 라고스 주정부에 100억 나이라(2,8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함.⁷⁾
- 남아공은 약 215억 랜드(약 1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방역예산을 책정하고, 코로나19 핫라인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음.⁸⁾
 - 남아공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⁹⁾
 - 의료진의 마스크 착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의 의료용 및 N-95 마스크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그림 4. 아프리카 정부 대응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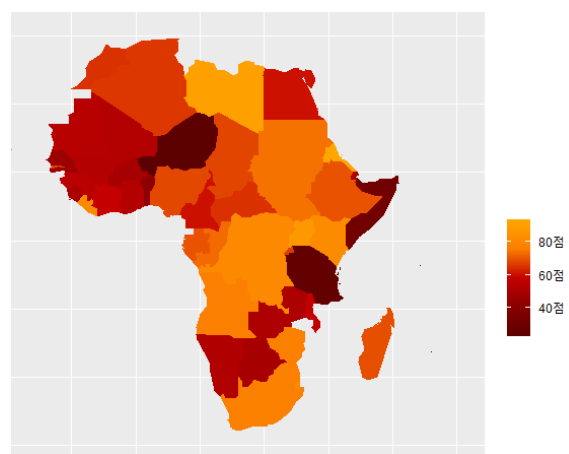


주: 1) 정부의 대응 점수는 경제 대응, 보건 대응, 그리고 각종 봉쇄 및 이동 제한조치를 반영한 수치이며, 대응을 잘할수록 지수가 높음.

2)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정부 대응지수가 없는 국가임.

자료: Hale, Webster, Petherick, Phillips, and Kira(202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그림 5. 각종 봉쇄/이동 제한 대응지수



자료: Hale, Webster, Petherick, Phillips, and Kira(202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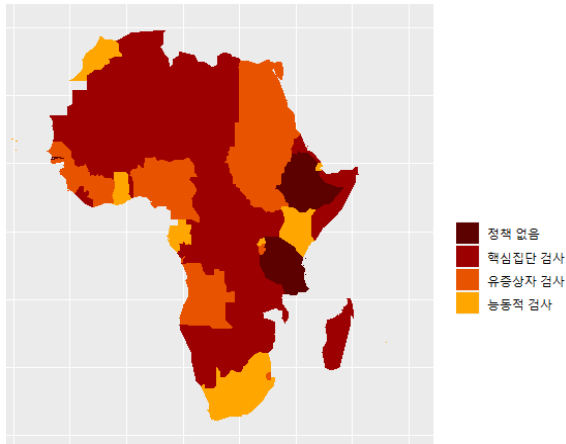
6) "Nigeria Plans \$1.2 Billion Coronavirus Fund to Curtail Spread"(2020.4.5.),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4-04/nigeria-plans-1-2-billion-coronavirus-fund-to-curtail-spread>(검색일: 2020. 8. 5).

7) IMF(2020), "Policy Responses to COVID-19,"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검색일: 2020. 5. 25).

8) "South Africa sets aside more money for COVID-19 but lacks a spending strategy"(2020. 6. 30),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south-africa-sets-aside-more-money-for-covid-19-but-lacks-a-spending-strategy-141619>(검색일: 2020.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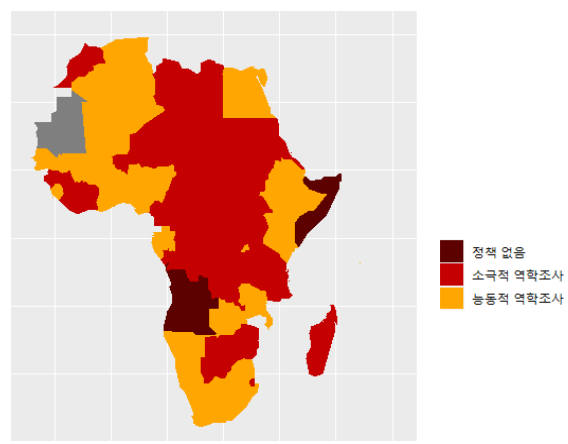
9) "Health Alert - U.S. Embassy Accra, Ghana"(2020. 6. 19), US Embassy in Ghana, <https://gh.usembassy.gov/health-alert-u-s-embassy-accra-ghana-june-19-2020/>(검색일: 2020. 7. 24); "A fine vs jail time for not wearing a mask in South Africa - how it will work"(2020. 7. 15), Businesstech, <https://businesstech.co.za/news/government/416637/a-fine-vs-jail-time-for-not-wearing-a-mask-in-south-africa-how-it-will-work/>(검색일: 2020. 7. 28).

그림 6. 코로나19 검사정책



주: 진단검사정책 정도는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계 검사정책 없음, 2단계 유증상자 중 핵심 집단만 검사, 3단계 유증상자 모두 검사, 4단계 증상이 없어도 능동적으로 검사임.
자료: Hale, Webster, Petherick, Phillips, and Kira(202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그림 7. 코로나19 접촉자 역학조사정책



주: 1) 역학조사는 그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되며, 1단계 역학조사정책 없음, 2단계 소극적인 역학조사 실시, 3단계 모든 사례에 대해서 역학조사 실시임.
2)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역학조사정책 자료가 없는 국가임.
자료: Hale, Webster, Petherick, Phillips, and Kira(202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 가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의로 예산을 1억 달러 증액하고, 3월 23일부터 수도 아크라 시내 모든 시장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
- 케냐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 보건정책과 기본 의료보건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음.
- 전반적으로 서아프리카보다는 동아프리카(케냐, 우간다,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지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수가 높은 편이나, 탄자니아,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대응은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 미흡한 편임(그림 4, 5 참고).
-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의 국경 봉쇄 및 지역간 이동 제한정책이 서아프리카보다 강력한 편임(그림 5 참고).

■ **[검사 및 접촉자 역학조사]**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낮으며, 특히 증상이 있는 핵심 접촉자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역학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6 참고).

- 남아공, 가나, 케냐 등은 적극적인 진단검사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내륙국을 중심으로 유증상자 중 핵심 집단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은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 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하고 있으나, 일부 내륙국은 역학조사에 소극적임.

■ **[정부 지원]** 주요국은 금리 인하, 고용수당 지원, 일자리 유지수당 지원, 중소기업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경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국은 일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빈곤층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케냐는 근로 소득세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으며, 월소득이 2만 4,000실링(222달러)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음.
 - 남아공도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였으며, 연소득 6,500랜드(376달러)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4개월간 월 500랜드(30달러)를 보조하기로 함.
 - 남아공은 약 500억 랜드(3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수당을 국민에게 지급함.
- 주요국은 경제충격 완화 및 고용 지원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국별 예산 규모는 남아공(약 300억 달러), 나이지리아(59억 달러), 케냐(5억 달러), 가나(1억 7,000만 달러) 순임.
 - 남아공은 GDP의 10%에 해당하는 5,000억 랜드(3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 및 대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수당을 지급함.
 - 나이지리아 정부는 6월 2조 3,000억 나이라(약 59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계획을 발표함.¹⁰⁾
 - 나이지리아는 코로나19 이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을 실시하고 있음.
 - 케냐는 537억 실링(5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여 기업 신용 보증, 중소기업 대출 및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가나는 약 20만 개의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연 3%의 저리대출을 실시함으로써 단기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가나와 케냐는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대면 접촉을 통한 현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모바일 송금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가나는 모바일 송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세디(18달러) 이하 모바일 송금의 경우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음.
 - 케냐는 전자지갑 한도와 모바일머니 송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모바일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면제하거나 인하함.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가. 경제성장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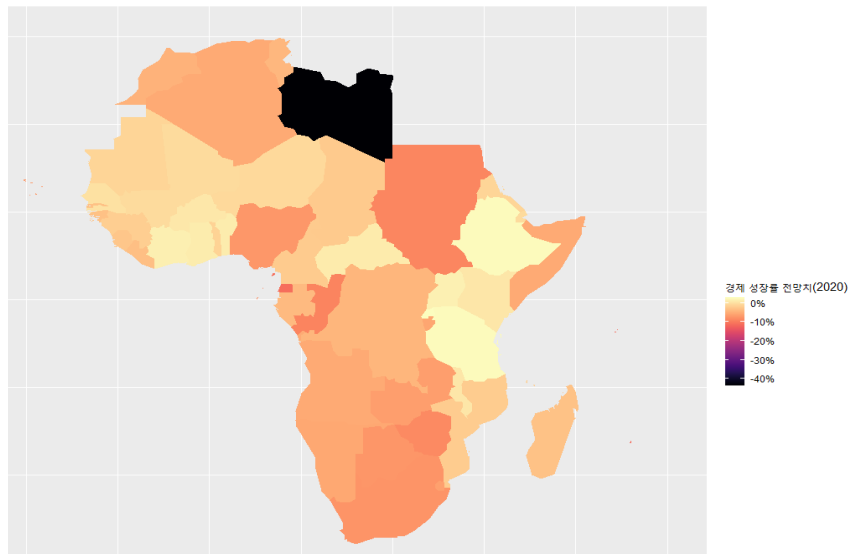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함.

- 아프리카개발은행은 2020년 아프리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월 3.9%에서 4월에는 -3.4%로 하향조정함(그림 8 참고).¹¹⁾

10) "Covid-19: Nigerian government explains how it will fund proposed N2.3 trillion stimulus"(2020. 6. 16), Nairametrics, <https://nairametrics.com/2020/06/16/covid-19-nigerias-explains-how-it-will-fund-n2-3-trillion-stimulus/>(검색일: 2020. 7. 31).

11) AfDB(2020), *African Economic Outlook 2020-Supplement Amid COVID-19*, p. 8.

그림 8.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개발은행의 GDP 성장률 예측치(2020)



주: 검은색으로 표시된 리비아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43.7%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 AfDB African Economic Outlook 2020 Supplement Amid COVID-19.

-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프리카 대륙은 처음으로 1,455억~1,897억 달러 규모의 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아프리카 권역 내 국경 봉쇄로 인해 전반적으로 각국의 국내소비가 감소하였음.¹²⁾
- 세계은행이 6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발표한 1월 전망치(2.9%)보다 크게 하락한 -2.8%로 조정함.¹³⁾
-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0.9%에서 -7.1%로, 나이지리아는 2.1%에서 -3.2%로, 앙골라는 1.5%에서 -4%로 하향조정함.
- IMF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4월 이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020년 마이너스 성장(-1.6%)할 것을 예측했으며, 6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더욱 악화된 -3.2%로 전망함.¹⁴⁾
- 국별로는 남아공의 성장률을 4월 -5.8%에서 6월에는 -8%로, 나이지리아는 4월 2.1%에서 6월 -3.2%로 예측치를 하향조정함.
- IMF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규모가 10년 정도 퇴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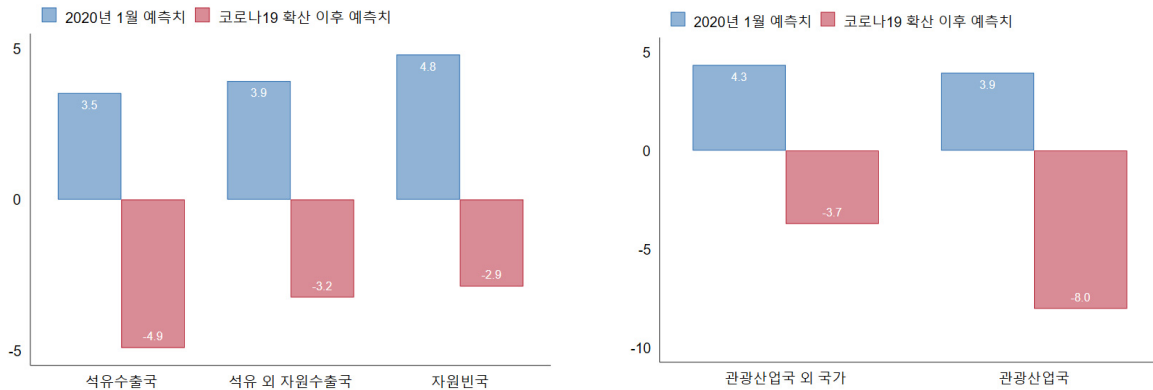
■ **[자원수출국과 관광산업국]** 코로나19 확산으로 아프리카 지역 자원수출국과 관광산업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그림 9 참고).

-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대표적인 석유 수출국인 알제리,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2) OECD(2020), *COVID-19 and Africa: Socio-economic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13) World Bank(2020. 6), *Global Economic Prospects*, p. 4; World Bank(2020. 1), *Global Economic Prospects*, pp. 146-147.

14) IMF(2020. 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p. 7; IMF(2020. 4),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p. 18.

그림 9. 자원수출국과 관광산업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¹⁵⁾

주: 석유 수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리비아를 제외한 수치임. 리비아를 포함한 석유 수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8.4%임.
 자료: AfDB African Economic Outlook 2020 Supplement Amid COVID-19.

- EU의 국경 봉쇄로 아프리카의 대유럽 수출 및 관광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¹⁶⁾
 - 중국, 미국, EU 등에 대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리비아의 경제적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AfDB는 석유, 천연가스 등 아프리카에서 수출하는 자원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원수출국 수익이 감소했다고 발표함.¹⁷⁾
- 관광수입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리셔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등도 2020년 경제성장률이 -8% 수준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3개월(4~6월) 사이 관광수입이 약 550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중 항공업계 손실은 80억 달러에 달함.¹⁸⁾

나. 해외자본 유입 위축

■ **[유입 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아프리카로의 해외 송금, 외국인직접투자(FDI), 공적개발원조(ODA) 등 해외 자본 유입이 위축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 유입되는 해외 자본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그림 10, 11 참고).

15) 아프리카 대륙의 자원수출 국가는 △석유 수출국(알제리, 앙골라, 카메룬, 차드, 콩고, 이집트, 적도기니, 가봉, 리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석유 외 자원수출국(잠비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말리, 나미비아, 니제르, 남아공, 수단, 탄자니아,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탄자니아, 기니, 시에라리온) 그리고 △자원반출국(베냉, 부룬디, 카보베르데, 코모로 제도,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에스와티니, 토고, 튀니지, 우간다)으로 구분하였음. 관광수입이 주 수입원인 국가는 모리셔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카보베르데, 코모로 제도 등 5개국임(AfDB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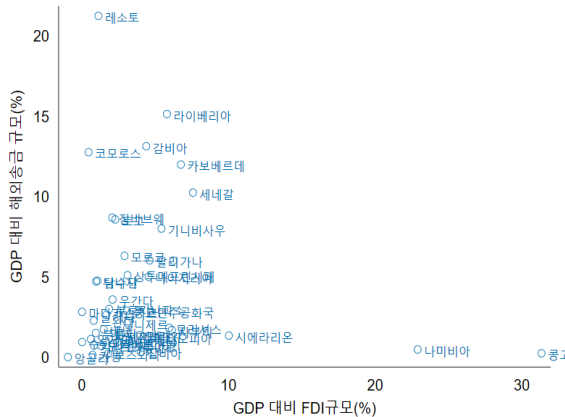
16) OECD(2020), *COVID-19 and Africa: Socio-economic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17) AfDB(2020. 4. 21),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s Covid-19 Rapid Response Facility(CRF)*, pp. 3-5, p. 23.

18) "Africa starts opening airspace even as COVID-19 cases climb"(2020. 7. 6), *The Hour*, <https://www.thehour.com/news/article/Africa-starts-opening-airspace-even-as-COVID-19-15387940.php>(검색일: 2020.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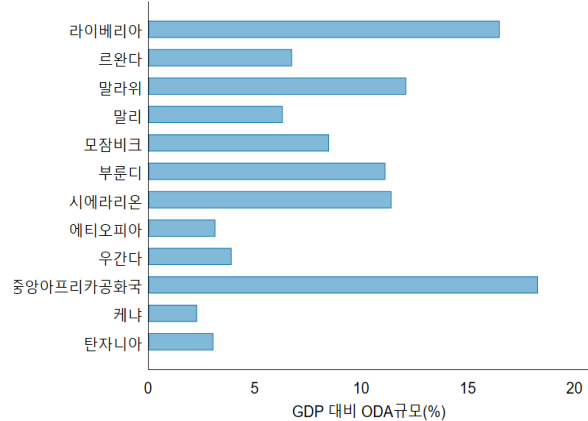
그림 10. 아프리카의 GDP 대비 송금 및 FDI 규모

(단위: %)



주: FDI와 송금 규모는 2014~18년 평균치임.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그림 11. 아프리카의 2014~18년 평균 GDP 대비 ODA 규모



주: ODA 규모는 2014~18년 평균치임.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 송금 규모는 전년대비 약 2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¹⁹⁾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출신 해외노동자 송금액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2019년 480억 달러에 달했던 송금액이 2020년에는 370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과거 서아프리카 지역에 에볼라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해외거주 자국민 송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는 자국민 송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해외 송금 감소로 아프리카 지역 보건 및 교육 분야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²⁰⁾
- 과거에도 해외 송금액 감소는 빈곤율과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
- 아프리카 내 FDI의 16%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FDI가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²¹⁾
-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남수단, 앙골라, 콩고, 잠비아, 시에라리온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²²⁾
-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예산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마저도 보건 및 의료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큼.²³⁾
- 최근 DEVEX에서 560여 명의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9%가 향후 각국 ODA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²⁴⁾

19) World Bank(2020),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2: COVID-19 Crisis Through a Migration Lens*, p. 27.

20) "Migrant Remittances Will Plummet. Here is What That Means for Global Development"(2020. 5. 20),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https://www.cgdev.org/blog/migrant-remittances-will-plummet-here-what-means-global-development>(검색일: 2020. 7. 24).

21) OECD(2020), *COVID-19 and Africa: Socio-economic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22) *Ibid.*

23) "Development pros brace for more needs, less money post-pandemic"(2020. 5. 19), *Devex Inside development COVID-19 Trends Tracker*, <https://www.devex.com/news/development-pros-brace-for-more-needs-less-money-post-pandemic-97245>(검색일: 2020. 7. 24).

24) *Ibid.*

- 해외 자본의 유입(해외 송금 및 FDI)이 감소할 경우, ODA 예산을 증액하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²⁵⁾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단 키트, 방역 등 감염병 예방에 ODA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 사업, 교육, 농업 등 타 분야에 대한 ODA 지원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이동 제한조치로 인해 공여국 개발협력 관계자의 물리적 이동 및 구호품 조달 등의 물류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 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다. 기타 주요 분야별 영향

■ [교육] 코로나19의 아프리카 대륙 내 확산에 따라 상당수 국가가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함(그림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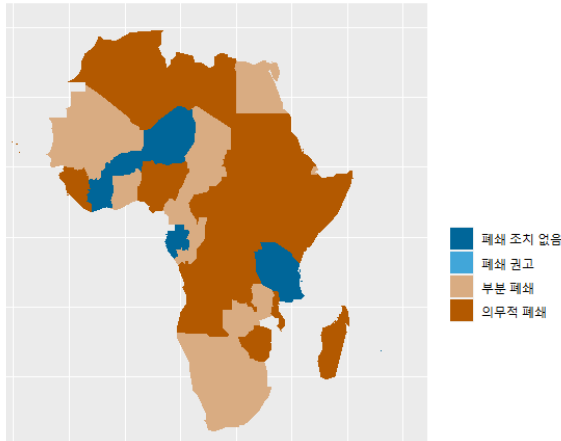
- 여타 선진국과 달리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업 중단으로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차단됨.
- 최근 세계은행이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90%가량이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TV 등 대면 교육 대체 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²⁶⁾
- 남아공은 6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거의 모든 학교가 운영을 재개하였으나,²⁷⁾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7월 말부터 졸업 학년을 제외한 다른 학년 수업을 다시 중단하기로 결정함.²⁸⁾
- 가나는 3월 모든 교육기관을 폐쇄하였으나, 최근 고입 및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등교를 허용함.
- 케냐는 2020년 말까지 초등교육기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2021년 학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학교 폐쇄가 장기화 될 경우, 교육 기회 상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던 빈곤층 학생들의 영양실조 문제까지 대두될 것으로 보임.

25) "COVID-19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solidating a new approach"(2020. 4. 23), OECD blog, <https://oecd-development-matters.org/2020/04/23/covid-19-and-the-future-of-international-co-operation-consolidating-a-new-approach/>(검색일: 2020. 7. 24).

26) "COVID-19 High Frequency Phone Survey of Households, Baseline(Round 1), Ethiopia, 2020"(2020. 6. 15), World Bank, <https://microdata.worldbank.org/index.php/catalog/3716>; "COVID-19 National Longitudinal Phone Survey 2020, Nigeria, 2020"(2020. 7. 23), World Bank, <https://microdata.worldbank.org/index.php/catalog/3712>(모든 자료 검색일: 2020.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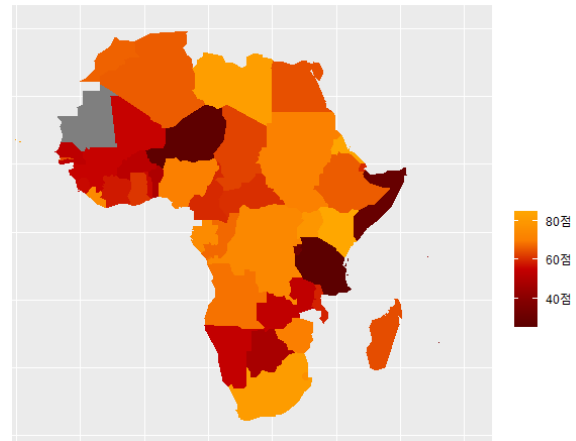
27) "95% of schools reopen in South Africa after virus-lockdown"(2020. 6. 10), Africa News, <https://www.africanews.com/2020/06/10/95-percent-of-schools-reopen-in-south-africa-after-virus-lockdown/>(검색일: 2020. 7. 28).

28) 남아공 대통령실(2020. 7. 23), "Statement by President Cyril Ramaphosa on progress in the national effort to contain the COVID-19 pandemic, Union Buildings, Tshwane."

그림 12. 코로나19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 교육기관
폐쇄 현황

주: 교육기관의 폐쇄 정도는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7월 9일 기준 정상 운영, 학교 폐쇄 권고(recommended), 일정 수준 의무적 폐쇄, 의무적 폐쇄임.
자료: Hale, Webster, Petherick, Phillips, and Kira(202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그림 13. 정부의 보건 분야 대응지수



주: 1) 정부의 보건분야 대응지수는 코로나19 검사정책, 봉쇄조치, 확진자 추적, 보건분야에 대한 단기적 투자 등의 지수를 종합적으로 지수화한 수치임.
2) 화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정부의 보건분야 대응지수가 없는 국가임.
자료: Hale, Webster, Petherick, Phillips, and Kira(202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 **[보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보건분야 예산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질병과 외상질환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 보건안보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²⁹⁾는 세계 평균(40.2점)에 미치지 못하는, 30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보건분야 인프라가 취약한 대다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질병 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음.
 - 국제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기초 의료보건 서비스 지속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 6월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남아공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임시 치료소 운영을 고려 중임.³⁰⁾

■ **[노동 시장]**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경제활동 제한조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일자리 2,500만 ~ 3,000만 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³¹⁾

- 2019년 주요국의 실업률은 세계노동기구(ILO) 추정치 기준 남아공(28.1%), 나이지리아(8.1%), 가나(4.3%), 케냐(2.6%) 순으로 높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으로 실업률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³²⁾

29)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Center for Health Security(2019. 10), Global Health Security Index.

30) "South Africa's Hospitals Bracing for Surge of Virus Patients"(2020. 7. 3), VO4, <https://www.voanews.com/covid-19-pandemic/south-africas-hospitals-bracing-surge-virus-patients>(검색일: 2020. 7. 27).

31) AfDB(2020), *African Economic Outlook 2020-Supplement Amid COVID-19*, p. 35.

32) World Bank(2020), "Unemployment, total(%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검색일: 2020. 7. 27).

그림 14. 아프리카 지역 사업체 폐쇄 현황(7월 9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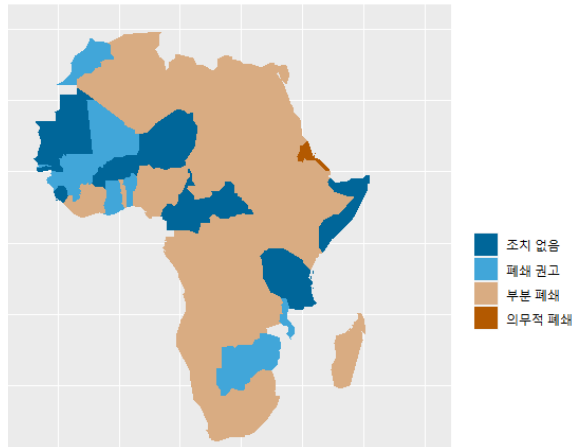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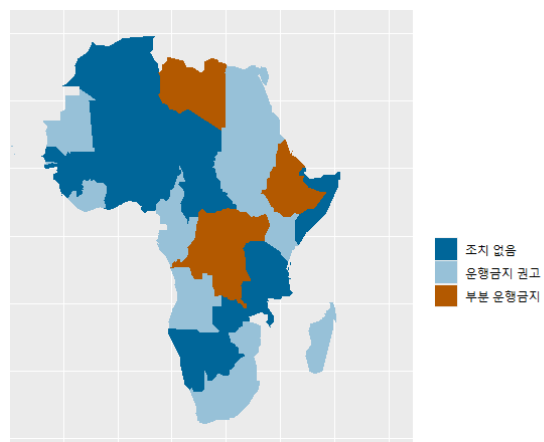


그림 15. 아프리카 대중교통 이용금지 현황



주: 직장 폐쇄 및 대중교통 이용금지 정도는 4단계로 구분됨. 폐쇄 및 이용금지 정도에 따라 폐쇄하지 않음, 폐쇄 권고(recommended), 일정 수준 의무적 폐쇄, 의무적 폐쇄임.

자료: Hale, Webster, Petherick, Phillips, and Kira(202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남아공의 2020년 3월 실업률은 30.1%로 2019년에 비해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실업률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³³⁾
- 남아공은 실업률 증가와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5월부터 광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단계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였으나, 경제활동 재개조치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음.
- 아프리카 노동시장의 80~90%가량을 차지하는 개인 사업자와 비정규직³⁴⁾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부양가족까지 포함해서 약 4억 ~ 4억 6,0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³⁵⁾
- 대중교통 이용은 대다수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용이 비교적 자유로우나, 이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그림 15 참고).

■ [SDGs 지표 전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³⁶⁾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전 세계 빈곤층이 약 7,0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³⁷⁾

33) "South Africa's unemployment rate climbs to 30.1%"(2020. 6. 23), Businesstech, <https://businesstech.co.za/news/government/409897/south-africas-unemployment-rate-climbs-to-30-1/>(검색일: 2020. 7. 31).

34) "An inclusive response to COVID-19 for Africa's informal workers"(2020. 5. 29), World Bank, <https://blogs.worldbank.org/africacan/inclusive-response-covid-19-africas-informal-workers>(검색일: 2020. 7. 29).

35) "Safeguarding Africa's food systems through and beyond the crisis"(2020. 6. 20), McKinsey & Company Featured Insight,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middle-east-and-africa/safeguarding-africas-food-systems-through-and-beyond-the-crisis#>(검색일: 2020. 7. 29).

36) "The impact of COVID-19(Coronavirus) on global poverty: Why Sub-Saharan Africa might be the region hardest hit"(2020. 4. 20), World Bank,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impact-covid-19-coronavirus-global-poverty-why-sub-saharan-africa-might-be-region-hardest>(검색일: 2020. 7. 23); Sumner, A., Hoy, C., & Ortiz-Juarez, E.(2020), "Estimates of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poverty," WIDER Working Paper Series wp-2020-43,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 Research (UNU-WIDER); Valensisi, G.(2020), "COVID-19 and global poverty: Are LDCs being left behind?" WIDER Working Paper 2020/73, Helsinki: UNU-WIDER.

- 아프리카 지역 빈곤선 이하(하루 1.9달러 미만) 인구는 4억 2,500만 명에서 4억 6,200만 명으로 약 3,7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³⁸⁾
 -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따라 극심한 빈곤(extreme poverty)에 처하는 인구는 아프리카에서만 2,600만~3,9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³⁹⁾
 - 경기침체에 따른 아프리카 대륙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UN에서 목표하고 있는 빈곤의 종식은 10년 이상 지연될 수 있음.⁴⁰⁾
- 코로나19로 인해 빈곤 감소(SDG 1), 식량안보(SDG 2)와 같은 소비 문제뿐만 아니라 깨끗한 식수와 위생(SDG 6), 양질의 일자리(SDG 8), 불평등 완화(SDG 10) 등과 같은 핵심 목표 달성도 어려워짐.⁴¹⁾
- 향후 젠더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임. 특히 빈곤,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로 인해 남녀간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⁴²⁾

■ **[식량안보]** 2018년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억 4,000만 명가량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와 동아프리카 지역 메뚜기 사태로 인해 식량안보가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됨.⁴³⁾

- 사헬지역(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약 5,000만 명이 식량위기 및 영양실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6~8월 사이에만 약 1,700만 명이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됨.⁴⁴⁾

3.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 **[대외부채 상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GDP 대비 외채 비율은 현재 57.6%에서 약 70%(AfDB 기준)~85%(OECD 기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지역이 2020~24년 상환해야 할 연평균 대외부채는 약 231억 달러 규모이며, 이 가운데 다자성 채무와 양자성 채무가 각각 연평균 59억 달러와 92억 달러에 이룸.⁴⁵⁾

37) "Independent rights expert speaks of 'anguish, stress and disempowerment' of poverty"(2020. 7. 7), UN Human Rights, <https://news.un.org/en/story/2020/07/1067781>(검색일: 2020. 7. 29).

38) AfDB(2020), *African Economic Outlook 2020-Supplement Amid COVID-19*, pp. 2-3.

39) IMF(2020. 6), *Regional Economic Outlook June 2020 Update(Sub-Saharan Africa)*.

40) Hoy, C., and Sumner, A.(2020), "Growth with Adjectives: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After the Pandemi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 537(July).

41) "Why we cannot lose sigh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uring coronavirus"(2020. 4. 23),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4/coronavirus-pandemic-effect-sdg-un-progress>(검색일: 2020. 7. 24).

42) "SDG setback 'tremendous' as COVID-19 accelerates slide"(2020. 5. 21), SciDev.Net, <https://www.scidev.net/global/sdgs/feature/sdg-setback-tremendous-as-covid-19-accelerates-slide.html>(검색일: 2020. 7. 24).

43) "Protecting food security in Africa during COVID-19"(2020. 5. 14),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blog/africa-in-focus/2020/05/14/protecting-food-security-in-africa-during-covid-19/>(검색일: 2020. 7. 23).

44) "COVID-19 will exacerbate Sahel food crises"(2020. 4. 23), Oxford Analytica,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DB252160/COVID-19-will-exacerbate-Sahel-food-crisis>(검색일: 2020. 7. 23).

45) GDP 대비 대외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에리트레아(127%), 모잠비크(124%), 잠비아(91%), 모리타니(81%), 감비아(79%)임. "COVID-19 will threaten African political stability"(2020. 4. 6), Oxford Analytica,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DB251710/COVID-19-will-threaten-African-political-stability>(검색일: 2020. 7. 24).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대중국 대외부채 상환 예정액이 총 상환 예정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⁴⁶⁾
- 2018년 기준 대외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앙골라(545억 달러, GNI 대비 54%), 나이지리아(462억 달러, GNI 대비 12%), 케냐(315억 달러, GNI 대비 36%), 에티오피아(280억 달러, GNI 대비 33%) 순임.⁴⁷⁾
- Oxford Analytica는 남아공과 가나의 대외부채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남아공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대외부채 리스크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⁴⁸⁾

표 1. 아프리카 주요국 2020년 대외부채 상황 예정액

(단위: 백만 달러)

대응조치	아프리카 총계 ⁴⁹⁾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다자성 채무 총액(달러)	5,451	281	391	737
양자성 채무 총액(달러)	9,348	464	157	1,025
비공식 채무 총액(달러)	7,358	781	-	869

주: 다자성 채무는 세계은행, AfDB, ADB, IMF 등을 포함함. 아프리카 총계는 채무연기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에 정보를 공개한 국가만 포함하고 있음. 남아공은 DSSI에 대외부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음.

자료: 세계은행,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세계은행, IMF, AfDB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2020년 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연간 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⁵⁰⁾

표 2. 국제기구의 아프리카 주요국 지원 세부 규모(2020년 7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지원 기관	아프리카 총계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IMF	13,549	1,000	3,400	4,300	739
세계은행	14,000	100	-	-	50
AfDB	10,000	-	288.5	288	218

자료: World Bank, IMF, AfDB.

- 세계은행은 140억 달러 규모의 패스트트랙 예산을 마련하여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패스트트랙 지원금(Fast Track Facility)을 지급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패스트트랙 금융 지원 외에도 기존 프로젝트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가나 아크라 통합개발 프로젝트(Greater Accra Resilient and Integrated Development Project),

46) World Bank(2020),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Data(검색일: 2020. 7. 24) 토대로 저자 계산.

47) World Bank(2020),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2020.

48) Africa's economic crisis will escalate debt crisis(2020. 7. 9), Oxford Analytica,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GA253802/Africas-economic-crisis-will-escalate-debt-crisis>(검색일: 2020. 7. 24).

49) 아프리카 총계는 채무연기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에 정보를 공개한 국가만 포함하고 있음.

50) IMF(2020. 6), Regional Economic Outlook June 2020 Update(Sub-Saharan Africa).

케냐 포용적 성장 및 재정 관리 정책(Inclusive Growth and Fiscal Management Development Policy Financing), 나이지리아 지역 감염병 경보시스템 강화(Reg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Enhancement) 등 개발협력 프로젝트⁵¹⁾와 연계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IMF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속금융지원금(Rapid Credit Facility),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등 878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금융지원금(Emergency Financing)을 각국에 지급함.⁵²⁾
 - 8월 4일 기준 전 세계 80개국이 긴급금융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가나, 케냐 등 주요국을 포함하여 37개국이 수혜를 받았음.
- AfDB는 지난 4월 1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지원금(Response Facility)을 회원국 정부와 회원국의 민간부문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⁵³⁾
 - AfDB는 긴급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각국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함.
 - 100억 달러 중 55억 달러는 개별 국가에, 31억 달러는 지역공동체에, 그리고 13억 5,000만 달러는 민간부문에 지급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튀니지, 모로코, DR콩고 등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중부아프리카 경제 및 통화 공동체(CEMAC)도 긴급금융지원금을 지급받았음. 지역공동체 긴급금융지원금은 지역 단위 보건의료 시설 개선과 검사 키트 구매에 사용됨.
- 주요 국제기구 외에도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eximbank),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투자은행, 이슬람개발은행, 게이트재단 등이 아프리카 지역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4. 전망 및 시사점

■ [정치적 불안정성 심화] 국내 소비 감소, 고용 불안 및 해외 자본(송금, FDI, ODA) 유입 감소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국가 대다수는 세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송금과 FDI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자본의 유입 위축 등으로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아프리카 지역 내 소요사태는 코로나19가 대다수 국가로 확산된 3~4월에 대폭 줄어들었으나,⁵⁴⁾ 5월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각국 정부의 강력한 지역 봉쇄 및 이동 제한정책으로 소요가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알제리, 이집트, 기니, 남아공, 소말리아 등지에서 시위가 증가함.

51) 특히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보건시스템 개선 프로젝트(Health System Performance Strengthening Project)와 지역 감염병 경보시스템 강화 프로젝트(Reg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Enhancement)가 포함됨.

52) "Covid-19 Financial Assistance and Debt Service Relief"(2020. 7. 29), IMF,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COVID-Lending-Tracker>(검색일: 2020. 7. 29).

53) AfDB(2020. 4),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s COVID-19 Rapid Response Facility(CRF)*, p. 3.

54) "The impact of COVID-19 on political tensions and conflict in Africa"(2020. 5. 5), Accord, <https://www.accord.org.za/analysis/the-impact-of-covid-19-on-political-tensions-and-conflict-in-africa/>(검색일: 2020. 7. 28).

-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는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의사 및 간호사의 파업이 있었으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사립학교 폐쇄에 따른 교사들의 시위가 있었음.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실업률과 소득지표가 악화되고 빈곤층이 증가하여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음.⁵⁵⁾

■ **[보건서비스 악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투입에 집중하면서 감염병과 무관한 공공 보건 서비스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건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음.

- AfDB와 세계은행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을 증액하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검사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다자기구와 지역은행의 코로나19 예산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만성 질병인 말라리아, 결핵 등과 수인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음.
- 아프리카 각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의료체계가 미비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의료 취약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보건서비스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나이지리아는 5,000억 나이라(13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기금을 조성하여 보건의료 시설 확충, 지역 보건 의료 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 대다수가 만성적인 공공 병상 및 의료진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성 질병의 확산에 따른 지역간 이동 제한이 지속될 경우,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질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재확산]** 최근 아프리카 각국은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코로나19 발병 증가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은 올해 초부터 통행금지 및 각종 상점·기관 폐쇄조치를 실시하였으나, 4월 말부터 점차 이러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⁵⁶⁾
- 주요국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이동, 대다수 경제활동 및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허용함.
- 남아공은 코로나19 경보 단계를 5단계로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음. 3월 말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실시하는 등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5월에서 6월 사이에 경보를 대폭 완화하여 경제활동을 상당 부분 허용함.
- 남아공은 확진자 증가로 인해 7월 중순부터 다시 통행금지를 실시하였으나 3월에 실시했던 이동 제한보다 낮은 수준의 통제이며, 택시 등 운송업계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⁵⁷⁾
- 케냐는 지역간 이동은 허용하되 야간 통행금지는 유지하고 있으나, 6월부터 통행금지 시간을 축소함.
- 주요국의 통행금지 및 직장 폐쇄조치 이후 3~4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었으나, 5월부터 감소하는 추세임(표 3 참고).

55) "COVID-19 will threaten African political stability,"(2020. 4. 6), Oxford Analytica,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DB251710/COVID-19-will-threaten-African-political-stability>(검색일: 2020. 7. 24).

56) IMF(2020. 6), *Regional Economic Outlook June 2020 Update(Sub-Saharan Africa)*.

57) 남아공 대통령실(2020. 7. 12), "Statement by President Cyril Ramaphosa on progress in the national effort to contain the COVID-19 pandemic, Union Buildings, Tshwane."

표 3. 국가별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집에 머무는 시간 증가율

(단위: %)

시기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3월	6.61	5.06	7.71	6.87
4월	22.43	27.10	33.07	22.63
5월	14.26	21.00	23.35	19.97
6월	11.57	15.57	18.10	16.13
7월	10.36	12.88	17.20	13.76

자료: Google Mobility Tracker.

- 나이지리아와 마다가스카르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교육기관을 다시 폐쇄하기도 함.
-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대륙은 전반적으로 인구당 검사 비율이 다른 대륙에 비해 확연히 낮아 역내 재확산의 위험성이 큼.
- 지역 내 감염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부른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이 일상화될 수 있으며,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도 증가할 수 있음.
- 아프리카 각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인 거리두기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영향을 아직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 케냐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접국인 탄자니아에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었다고 과장 발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역내 확산 위험 존재.

■ [빈곤층 증가 및 식량안보 악화] 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농업 생산과 식량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6,800만 명가량이 극빈층으로 떨어져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⁵⁸⁾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아프리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⁵⁹⁾
- 특히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하루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 인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만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농촌보다는 도시민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아프리카 지역 농업 생산에도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임.⁶⁰⁾
- 케냐에서는 도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식량 부족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텃밭 프로젝트(kitchen garden project)를 시행함.
- 이 프로젝트는 약 1,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가구에 채소류(케일, 시금치, 동부콩(cowpea) 등) 종자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58) Valensisi, G.(2020), "COVID-19 and global poverty: Are LDCs being left behind?" WIDER Working Paper 2020/73, Helsinki: UNU-WIDER.

59) "Poverty and food insecurity could grow dramatically as COVID-19 spreads"(2020. 4. 16), IFPRI, <https://www.ifpri.org/publication/poverty-and-food-insecurity-could-grow-dramatically-covid-19-spreads>(검색일: 2020. 7. 24).

60) "Prepare food systems for a long-haul fight against COVID-19"(2020. 7. 2), IFPRI, <https://www.ifpri.org/blog/prepare-food-systems-long-haul-fight-against-covid-19>(검색일: 2020. 7. 24).

■ [역내 통합 저해 및 교역량 감소] 각국의 국경 봉쇄로 역내 교역량이 감소하였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적 통합이 불투명해짐.⁶¹⁾

- 7월 1일 출범 예정이었던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가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었음.
 - AfCFTA는 2019년 5월 법적으로 발효되고, 2019년 7월부터 운영 준비(operational phase)에 들어갔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양허안을 적용한 무역이 개시될 예정이었음.⁶²⁾
 - AfCFTA의 출범으로 아프리카 내 13억 인구가 무역장벽 없이 자유롭게 교역을 하고, 생산 총액이 2조 5,000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하게 하며, 아프리카의 대외 수출량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3% 증가하게 할 전망이었음.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감소할 경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아프리카 역내 무역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⁶³⁾
- 남아공의 경제활동 제한 및 국경폐쇄로 인해 나미비아,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남아공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주변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KIEP

61)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 국가가 참여하는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출범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었음. 아프리카 내 경제공동체로는 AMU(아랍-마그레브 공동체), CEN-SAD(사헬-사하라 국가 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EAC(동아프리카 공동체), ECCAS(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IGAD(동아프리카 정부간개발기구), SADC(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등이 지역별로 있으며, 역내 통상, 단일통화 구축, 자유로운 이동 등의 다양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62) AfCFTA 관련 내용은 정재욱, 김예진, 정민지(2019. 5. 30),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의 발표 의미와 전망」 및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아프리카연합 홈페이지, "Agreement Establishing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아프리카연합 홈페이지, "Operational Phase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Launched."

63) "Prepare food systems for a long-haul fight against COVID-19"(2020. 7. 2), IFPRI, <https://www.ifpri.org/blog/prepare-food-systems-long-haul-fight-against-covid-19>(검색일: 2020. 7. 24).